

단순·소박할 때 자유롭게 행복한 삶 실현돼

天下唯我獨尊'이라고 했고,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마 존재(因陀羅網存在)'라고 했으며, 선불교에서는 '본래부처(本來佛)'라고 했다. 불교는 병에 따라 처방을 하는 사유 방식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과 의미도 유아독존, 인드라마, 본래부처 등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기본 맥락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생명의 존재인 내가 유아독존의 존재, 인드라마 존재, 본래부처의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일반적으로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내 생명이 내 안에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기존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믿음은 내 생명의 실상에 근거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극단의 견해로 한낱 망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 생명이 내 밖에 따로 있던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기존의 사고와는 반대로 내 생명이 내 밖에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생명의 실상과는 무관한 극단의 견해로 한낱 망상일 뿐이다.

내 생명이 어디엔가 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실상과 삶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극단의 견해로 한낱 전도몽상(顛倒夢想)일 뿐이다.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붓다는 "유아독존이면 유아독존으로 유아독존답게 살면 된다"라고 했다. 인드라마 존재, 본래부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 대답은 다르지 않다.

유아독존으로 유아독존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에서는 '삼계계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화엄경>에서는 '보현행원(普賢行願)', 선불교에서는 '행역선 좌역선(行亦禪 坐亦禪)' 또는 '대무심행(大無心行)'이라고 했다.

풀어보면, "뭇 생명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전 존재를 바쳐 노력하겠다" "뭇 생명들을 내 생명처럼 잘 섬기고 모시는 삶에 나의 전 존재를 바치겠다" "움직일 때에도 대자대비의 본래부처로 움직이고, 앉을 때에도 대자대비의 본래부처로 앉는 대무심행의 삶을 사는데 전심전력하겠다"이다.

그 가운데에서 본래부처행인 보현심대행원을 간단히 간추려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원래 부처님이라는 인격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선 '인드라마 존재'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표현했음을 밝힌다.

첫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에게 예경 올리겠습니다.

둘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를 칭찬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인드라마 존재에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도법 스님은 9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문문화공연장을 가득메운 300여 불자 자원봉사자들을 향해 함께 하는 공동체적 삶과 그 삶을 위한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큰 박수를 받았다.

상호 신뢰와 애정의 생활화·사회화가 해답

화염은 오늘의 불교가 갈 길 시원하게 보여줘

칙과 질서요, 생명의 보편적 진리 즉 다르마의 길이 기 때문이다. 또는 본래부처 저절로 주어질 천부의 권리이고 의무이며, 뭇 생명이 살고 싶은 삶이기 때문이다. 단순 소박한 인생, 단순 소박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 사회의 갈등과 대립, 고통과 불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처와 중생의 벽, 깨달음과 미혹의 벽, 성차별의 벽, 국가와 민족의 벽, 이념의 벽, 종교의 벽, 이해타산의 벽 등을 넘어 뭇 생명의 영원인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되는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유아독존답게 무한한 자부심으로 기꺼이 죽음을 다해 무주상으로 낮춤, 비움, 나눔의 삶을 산다. 본래부처답게 기꺼이 죽음을 다해 무주상으로 존중, 배려, 감사의 삶을 산다. 즉 죽을 힘을 다해 주체적으로 다르마의 길, 본래부처의 삶인 단순 소박한 인생, 단

순 소박한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뭇 생명의 영원한 바람인 열반의 삶이 바로 내 삶이 된다. 인류의 영원한 꿈인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자타가 함께 성불하는 길이 열린다.

오늘 우리가 이룩하고 누리는 인류 문명의 어머니 품은 자연이다. 자연은 위기에 직면한 현대 문명의 구세주이다. 숲이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강한 설득력을 갖는 시대이다. 도시화, 기계화, 자본화된 사회일 수록 자연, 숲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숲의 종교인 불교, 산중불교의 특징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역으로 보면 사막의 종교 시대가 가고 숲의 종교인 불교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무방할 터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국불교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했다고 하겠다.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혁

명적인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그 하나로 새로운 대승불교, 새로운 산중불교 운동이 요구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화염은 오늘의 불교가, 불교인이, 출가 보살, 재가 보살이 갈 길을 시원하게 보여주고 있다.

화염 사상의 핵심은 본래부처론이다. 본래부처론의 활발한 주체적 실천론이 대무심행이라면 역동적인 관계적 실천론이 보현행이다. 그 내용을 평범한 인간적 일상으로 가져와 정리해보면 그분의 그분은 존재답게 온 힘을 다해 관계 맺어진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으로 삶을 가꾸어내는 것이다. 신뢰와 애정의 정신으로 단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공동체 삶이라고 하고, 그 정신에 따라 사회를 만들고 운영하면 그 사회를 우리는 공동체 마을 또는 사회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의 회복 또는 신뢰와 애정의 생활화, 사회화인 것이다. 만일 우리들이 지리산 현장에서 상호간의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화염의 꿈, 우리의 꿈을 '지리산 불교'로 가꾸어 간다면 분명 그 곳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활로로 지리산 불교를 모색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판단이다.

정리=도덕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뜯 앞은 문득 가을입니다. 풍성한 마음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여시아문 추천도서」가 당신의 도반이 되겠습니다.

2010년 「여시아문 추천도서」 8선

BOOK

<p>가는곳마다 주인이 되라 양장본 / 374쪽 / 값 15,000원 홍교스님 지음</p> <p>깨달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햇빛과 물과 대지의 자양분과도 같은 말과 글을 그대 자신의 삶은 어느 세월에 구가할 것인가. 이제는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라.</p>	<p>감산자전 4×6판 / 247쪽 / 값 8,000원 감산스님 지음 / 대성스님 옮김</p> <p>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p>	<p>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대행스님 지음</p> <p>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범용법음</p>	<p>시조시장경 양장본 / 337쪽 / 값 20,000원 경인, 김준현 지음</p> <p>한국문학사상 최초로 불경을 시조시화한 책. 시 쓰기가 무한공간과 무한고요를 체험하는 일이라 보았을 때 불교의 삶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p>
<p>옛거울 밝히니 해와달이 빛을 잃네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법현스님 지음</p> <p>임계선원장 법현(法喜)스님 법어집. 생사의 문벌심은 옛거울의 채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p>	<p>작대기 양장본 / 160쪽 / 값 9,000원 정홍철 지음 / 고암 정병래 그림</p> <p>인생의 "김은맛"을 속삭이는 이야기들! 풍경소리의 작가 정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삶들. 인생을 가장 빨리, 후회없이, 기쁨 속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아시나? '작대기'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세요.</p>	<p>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양장본 / 352쪽 / 값 13,000원 한암대원선사 지음</p> <p>부처님으로부터 조사 스님을 거쳐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으려고 있었는가. 계룡산 학림사 오동선원 한암대원 스님이 이그림의 맥을 세상에 가르쳐 보인다.</p>	<p>염불환향곡 4×6판 / 197쪽 / 값 7,000원 기성래선 선사 지음</p> <p>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사,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계 염불곡으로서 외유기나 따라 일기 쉽게 리듬이 스며드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p>

주 문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